

# 4次5個年計劃과 食工의 役割

## 머 리 말

우리나라 4次計劃의 Target는 安保의 基盤과 自立構造의 確立에 있다.

今次 93回 國會에서 通過된 社會安定法, 防衛稅法, 民防衛法은 이것을 土臺로한 國家의 Mobilization에 System으로 指向하는 것이라고 본다.

더욱이 經濟的活動은 安保와 社會에 中樞役割을 하고 있으니 만큼 우리의 國家的인 全力이 經濟建設에 있고 이의 達成을 위한 總和體制가 切實한 이때 우리는 世論을 統合 調整한 誘導計劃(Indicative Planning)으로 밀고나가 精神的 核心을 形成(Mental Frame Work)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經濟制度의 硬直性에서 벗어나 오늘의 諸問題를 克服하고 政府와 民間企業間의 相互協調가 必要하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의 3次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의 遂行으로 보기 드문 經濟成長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複雜多岐해가는 産業을 均一的으로 뒷받침 하지 못한 점을 솔직히 是認하지 않을 수 없다.

動態經濟學의 先驅者 「미카엘·칼렛츠키」(Michael Kalecki) 교수는 “캠브리지”大學에서 行한 特講에서 「經濟制度和 理論은 지난 200年동안 거의 發展이 없으나 世界景氣의 循環은 過去의 理論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樣相을 띄게 되어 여기에 알맞은 分析方法이 適用되어야 한다」고 主張한 바 있다.

지난 74年の “에너지” 및 資源波動以後 「經濟의 硬直性和 閉鎖性이 世界的으로 問題視되고 수 많은 經濟學者和 經濟分析家들이 傳統



朴 恩 泰

△서울食品副社長·經濟學博士▽

的인 方法으로서는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受難을 당하고 있는 現實에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次元에의 발돋움을 하여야 할 實情에 있다.

이런 觀點에서 볼 때 새로운 經濟計劃에서 다루어져야 할 重要한 課題는 産業計劃과 社會開發이며. 이의 效果的인 遂行을 위하여 政府와 民間, 企業家와 勤勞者가 協調하는 體制 즉 Indicative planning이 무엇보다도 必要하다고 본다.

經濟計劃에 參與하는 모든 機關이 그 機能上 民間人들의 적극적이고 自發的인 參與를 必要로 함은 政府의 經濟政策에 대한 國民의 의구심을 해소시켜 주며, 또한 各産業分野의 育成計劃을 과약함으로써 民間産業自體의 政策을 세우고 나아가서는 國家의 基本目標에 方向을 맞추어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總和를 이룩하는 데도 核心的인 推進要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食糧自給의 命題가 第4次計劃에 이어 하나의 指針이 되어 있고, 食糧自給의 絕對量不足으로 인한 食品加工業의 相互補完的인 役割이 무엇보다도 질실한 이 때다. 따라서 食品産業人은 食生活의 國家的인 次元을 意識하고 4次計劃의 지침과 企業人의 姿勢를 再確認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 I. 第4次計劃과 I.P. System.

지난 13年間의 經濟計劃期間中 우리나라의 産業은 類型別로 볼 때 複雜하여져서 政府의 主觀만으로는 도저히 政策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膨창해졌다.

1·2次 計劃樹立時만 하더라도 거의無에서 시작한 設計였기 때문에 모든것이 매우 單純

하였다. 그러나 77년부터 시작될 第4次經濟計劃에서는 産業全般의 戰略的 育成을 위하여 民間企業을 推崇한 産業專門家의 參與下에 國際的 「에너지」 및 資源戰爭에 보다 能動的이고 攻擊的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苦難끝에 이만큼이라도 構築해 온 韓國經濟의 基盤은 붕괴될 위험성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政府는 民間企業을 基本方向으로 誘導하여 그들의 企業底力을 길러주고 또한 情報나 顧問特의 助言을 받아들여 政府와 民間의 合意로서, 世論에 의하여 計劃이 樹立된다는 強한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하며 “多數의 利益을 위한共同追求(a Common Search for the Common Interests)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는 바는 다소 번거롭고 管理하기가 힘들것이나 圓卓會議制度를 導入하여 産業人들과도 充分한 對話를 갖고 그들의 意見이 國家의 産業計劃樹立에 反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第4次 經濟開發計劃에서는 80年代를 잇는 韓國經濟가 産業國家로서의 基礎를 굳혀야 하며, 이를 위하여 全産業人의 智慧를 모은 産業計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1, 2, 3, 次에 亘하여 遂行해 온 政府一方의 計劃「Mandatory Plan」에서 産業全分野에 걸친 理解集團의 合意와 參與에 依하여 樹立되고 執行되는 誘導計劃 「Indicative Plan」이 4次計劃에서 活用코져 하는 國家一體的 經濟計劃機構이다.

따라서 産業人은 國家的次元에서, 官·民·實·勞의 協調體制의 4次計劃方向에 호응하여 國民經濟의 自立構造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食工人은 食糧自給의 長期的 비전에 따라, 主食改善, 安保에 基礎한 非常食糧의 轉換, 食品加工産業에 의한 食폐턴의 改善으로 食糧自給으로 綜合的인 計劃의 研究와 開發에 先導的인 役割을 해야한다고 본다.

## II. 産業과 社會開發計劃

### A. 産業計劃

政府는 民間企業을 基本方向으로 誘導하여 힘을 길러주고, 政府와 民間의 合意로서 計劃이 이루어진다는 의식을 고취시켜 共同的追求에 努力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經濟計劃은 國家의 限定된 資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投入配分을 行하여 最善을 다할 수 있느냐 하는 指標論理學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에서 國防과 民間産業을 가장 理想的으로 發展시키고 있는 國家는 “프랑스”와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프랑스”는 과거 100年동안 다섯번이나 노틀담寺院에 機關銃을 들이던 宿敵 獨逸을 항시 意識하여 防衛와 民間産業을 일으켜, 平時와 戰時의 轉換産業을 相互效果있게 과급적으로 일으켰다.

오늘날 우리에게 國家의 安保가 무엇보다도 先行되어야 할 문제로 擡頭되고 있기 때문에 綜合的인 總動員體制의 確立이 시급히 要請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發展計劃과 戰略이 加一層 行하여져야 한다고 본다.

### B. 社會開發

“프랑스”는 1962年 第4次 計劃에서, 日本은 1970年 新經濟社會 發展計劃에서 各各 經濟成長爲主政策에서 社會的均衡을 重視한 社

會의 次元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反映되게 됨으로써 國家綜合計劃의 意義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社會綜合計劃에서 教育制度, 住宅政策, 地域開發등의 광범한 社會開發政策이 論議되겠지만 當核社會에 적정한 投入을 통한 福祉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 ① 社會的 經濟指標

先進資本主義社會나 開發過程에 있는 社會에 있어서 그 社會構造가 變遷함에 따라 社會的 希望事項은 變化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어떤 特定社會가 지니고 있는 與件에 따라서 人間의 經濟的 問題는 多樣해 진다. 西歐式 經濟分析道具가 반드시 우리 社會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70年代에 들어 와서 開發概念의 變化에 따라 우리 自體의 理論의 必要性이 高潮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나라의 實情에 맞는 經濟的指標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指標가 160개가 調査, 適用되었고, 日本의 경우도 365개의 指標가 調査되었음을 알 수 있다.

一례로 國民保健計劃(Gross National Health)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 동안의 高度成長에 따른 經濟社會構造의 變遷으로 이에 부응할 社會的 經濟指標의 調査가 先行的으로 이루어져 保健醫療와 住宅 등 基本生活의 厚生問題가 國家計劃에 反映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② 누벨소시에테

開發國家에서는 經濟發展의 沮害要因을 제거 하기 위한 努力이 社會構造全域에 걸친 구체적인 開發 “아이템”의 選定과 새로운 價値觀의 定立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일면 防衛構築 일면 自立經濟

確立이라는 무거운 課題를 질머지고 있다. 두 課題를 다 같이 充足시키는 要因은 바로 國民의 推進力이며 이는 우리의 目標指向要因이다.

다러한 指向要因은 곧 國民能力의 總動員에서 發見할 수 있으며 또한 社會發展의 “암”이라 할 수 있는 폐습, 否定的 思考方式, 不正 歪曲된 倫理觀등의 분식을 위한 社會底邊의 開發 내지 改革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 바로 第4次 經濟開發計劃의 새로운 課題로서 社會近代化計劃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의 새마을 運動을 좀 더 높은 次元으로 昇華시켜 集團의이고도 民族的인 運動으로 強力히 推進하여야 할 것이다.

### C. 協調經濟體制

人間의 能力을 最大限으로 動員하고 이를 統合하여 다시 이것을 經濟建設의 目標에 焦點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社會의 모든 階層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자의 行動目標을 알고 있어야만 된다.

그리고 이 目標을 成就하는 것이 바로 自身들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相互協調가 必要한 것이다.

“프랑스”의 例만 보더라도 協調經濟體制를 위한 計劃樹立機構로서는 計劃의 樹立, 調整, 執行, 評價를 위한 計劃本部 (Commissariat Général du Plan)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26개의 專門委員會로 構成되어 있는 情報, 諮問, 方向技術 및 產業의 技術效果등을 檢討하는 機能을 갖고 있는 垂直的計劃委員會 (Vertical Modernization Commissions)가 있다.

또한 經濟主要部門에 대한 檢討와 垂直的 計劃委員會에서 거론되고 있는 專門別條件을 進

체적 國家基本計劃에 맞추어 調整, 發展, 調和시켜 전체적인 均衡과 投資效果를 심의하는 水平的計劃委員會 (Horizontal Modernization Commissions)와 이를 뒷받침하는 作業班 및 研究機關이 있다.

敗戰의 “프랑스”를 오늘의 大國으로 일으킨 初代 “프랑스”의 經濟計劃本部長官 “장·모네”는 國家의 經濟計劃의 達成은 社會的諸分子가 그 計劃을 理解하고 人間의 意志와 努力을 總合하는 것이라고 主張한 바 있다.

協調經濟 (L'conomie Concert'ee)를 주창하여 官民, 企業家, 勤勞者의 연결을 통하여 世論에 의하여 世論을 묶어 誘導計劃을 밀고 나가 오늘의 위대한 “프랑스”를 建設한 그 核心은 總和的 意志의 糾合 즉, 總動員體制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社會가 찾던 第2次 經濟, 總和, 社會開發, 새마을精神 등은 바로 “프랑스”가 던지고 일어난 “에코노미 공세르프”와 부합시킬 수 있다고 본다.

우리 社會에 무르익어가는 精神的體制의 核心을 形成하는데 있어서는 이에 대한 多角的인 事例 研究가 必要하다고 본다.

## III. 食品產業의 役割

### A. 國民經濟의 意識

食品產業 (Food Industry)은 지난 1960年代 以後부터 先進諸國의 開發過程과 같이 刮目할 만한 需要增大와 商品의 多樣化를 가져와서 70年代 부터는 하나의 獨立된 國家產業의 項目으로 發展되어 國民經濟의 成長 指標中的의 하나로 重視하게 되었다.

따라서 食品價格의 安定은 物價政策의 leading Sector로써 物價安定과 밀착되어 政府의

主된 關心의 對象品目으로 등단하여 食品産業이 차지하는 産業間의 比重이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宿命의 食糧自給이라는 命題때문에, “食” 自體의 國家總合의 需給을 確保하여야 하고, 단순한 便宜食이나 嗜好食, 間食으로 定義되고 있는 加工食品이 國家의 眼目에서 自體의 跳躍을 통하여 國民의 食패턴의 抜本的인 改革과 高蛋白食品, 酪農啓蒙等의 綜合開發下에 우리나라의 人口에 絶對多數의 食糧의 量을 카버하는데 우리의 또다른 課題가 있다는 생각을 할 때 國民經濟의 意識을 저바릴 수 없다고 본다.

### B. 食工自身の問題

우리나라 食品産業이 前述한 바와 같이 量的인 膨大로 인한 國民經濟의 重要位置에서, 輸入代替, 國民健康에의 一翼, 雇傭의 増大 및 輸出産業으로 發展하여 획기적인 成長을 보인 것은 놀라운 일이다. 더욱이 世界的인 不景氣가 74年以後 18個月을 연이어 오고 있으나, 他産業에 比하여 不況克服의 底力을 무

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의 食工現實에서 아쉬운 問題가 있다고 하면 市場需要를 무시한 過大施設로 협소한 販賣市場에서의 지나친 競争으로 群雄割據하는 春秋戰國時節을 彷彿케 하는 한심한 企業出血을 더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經濟豫測家들은 今年下半年부터 景氣가 回復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社會에는 당분간 不況이 계속될 것으로 筆者는 내다본다.

따라서, 우리는 食工自身の 競争을 중화시켜나가는 共同戰線을 펴고 企業單位를 새로운 動機開發을 통하여 生産性을 培養하는 質經營으로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瀕死狀態에 있는 業界를 더 競争으로 치달아 自己淘汰에 까지 끌고나가 資本戰爭을 하는 重大한 選擇(Choice)에 있음을 우리食工人은 再三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77년부터 始作되는 우리 經濟의 중핵이라 할 수 있는 4次計劃, 安保意識, 自立構造, 食糧自立 등의 宿題에서 우리食工人의 役割은 중차대 하다고 볼 수 있다.

### ◀ 知 識 知 識 ▶

#### 人事管理와 人間關係

人事管理는 各種 人間管理技術의 應用을 通하여 從業員의 勞動能率을 最高度로 持續시키는 것을 그 目的으로 한다.

組織에 있어서의 人間管理技術은 人間과 組織社會에 대한 基礎的研究에 依存하여 成長하여 왔으며 人間關係論의 研究는 이와 같은 經營의 人間管理技術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貢獻으로서 組織內人間이 勞動意欲의 決定要因에 관한 새로운 基礎理論을 提供하였다.

人事管理가 當初에 獨立된 研究分野로 成立한 것은 1920年代를 前後하여 發達한 勞動心理學·勞動生理學 등의 理論을 援用한 소위 溫情主義의 管理의 補助手段으로 出發한 것이다.

그後 1930年代에 完成을 본 호손實驗의 結果 종래까지 各種經營管理技術의 效能을 制約하던 未知의 原因을 解明하는데 基礎가 된 公式組織內 第2集團의 存在를 確認하게 되어 이어서 經營內의 各種社會關係의 存在方式과 組織能率과의 關係에 關聯한 人間關係論의 研究는 人事管理論의 基本假定上의 修正과 동시에 새로운 管理技術의 開發 基礎가 되었다.

그 結果 組織內의 人事管理機能의 中心點은 作業現場을 爲主로 하게 되고, 人事管理主體는 人事스텝으로부터 所屬直系管理로 옮겨지게 되었다.